



고농도 증식이 빠른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을 일컫는다.
다른 실내 공기 오염 물질과 달리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 요소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고농도로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 편집실



서식 특성

총부유세균은 음식물 찌꺼기 또는 동물의 분뇨 같은 유기물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한다. 부유세균은 발열·기침·염증 등을 유발하며, 인체의 호흡기, 점막 부위,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과민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청결 상태 및 행동 양상, 청소 및 환기 상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습기가 많을 때(습도 70% 이상)와 20~35°C의 온도 범위에서 번식이 빠르다.

유지 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등 민감 시설군에 대해 부유세균 유지기준을 800CFU/m³*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간 중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실내 면적이 500m²를 초과하는 경우 500m²당 1곳 추가)을 시료 채취하는데, 측정은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 높이에서 이뤄진다. 📌

*CFU(Colony-forming unit)의 세균의 집락수를 세는 단위

총부유세균 관리요령

실내를 규칙적으로 청소(물청소할 경우,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고 가습기, 에어컨은 주기적으로 내부를 청소하여 필터를 교체한다.

오염된 물은 제거하고 표면은 살균제(70% 알코올 이용 가능)를 처리한다. 살균제를 처리한 후, 추가로 물이 스며들거나 고여있지 않도록 환기하여 건조한다.

실내 이용객에 의해 들어오는 먼지 등도 원인이 되므로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매트를 깔고 주기적으로 세척해 준다.

오염물질이 실내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실, 화장실 등에는 국소환기설비(배기팬 등)를 설치한다.

<출처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